**예수 성탄 대축일(2018년 12월 2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왔고, 온 세상이 기쁨과 행복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불교 신자건 사이비 종교 신자든, 무신론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남녀노소 상관 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색도 상관 없이, 아무튼 세상 온 사람들은, 비록 성탄의 의미를 모르거나 믿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이 담긴 카드도 돌리고….

오늘 만큼은 원수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한테도 괜히 한번 웃고 지나갑니다. 평소 사이가 안좋았던 사람들과도 오늘은 웬지 좀 친한 척도 해보고 싶습니다. 왠지 오늘 만큼은 착하게 좀 살고 싶어집니다. 온 세상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근데 내일이면 다시 원상 복귀,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세상에 구세주가 왔어도 또 내일이면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 정말 큰 축제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진짜요? 거짓말… ㅋㅋ

네... 저도 무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디어 이 성탄 대축일 마지막 미사를 하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무사히 모든 행사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미사가 무지 많았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고백 성사도 무지 많이 했구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 미사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성탄의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ㅎㅎ

세상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런 순간이었을까요! 세상에 처음 나신 구세주를 품에 안았을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느꼈을 벅찬 기쁨과 행복이 늘 삶 안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이 벅차고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산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도시 밖에서 양들과 함께 뒤섞여 생활했으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천하고 가난하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눈으로 직접.

그들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보리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믿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웬 이런일이!

학식과 덕망이 높거나 뛰어난 사람들, 특히 당시에 그 잘난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커다란 도시의 중심가에서 메시아 탄생이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산골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구세주는 세상에 태어 나십니다. 이 아기의 운명이 태어날때 부터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게 될것이고, 평생 편하게 누워 쉴 곳조차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운명이 이미 태어날때 부터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이 아기는 세상에 참된 평화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어둠과 절망이 있는 곳에 빛과 희망을 주러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1차 세계 대전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전쟁터의 성탄 전야였습니다. 그 날 따라 무지 무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몇개월 째 피말리는 총소리와 화염 속에 휩싸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성탄 전야라 아주 조용했죠. 젊은 병사들은 모두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추운 전쟁터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나 하나 둘씩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함께 부르는 큰 노래 소리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그치고 나니까, 놀랍게도 반대편 적군 쪽에서도 그 똑같은 노래를 자기네 언어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원수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군 적군 할 것없이 모두들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은 세상에 전쟁도 테러도, 그리고 어떤 분쟁도 없습니다. 종교나 신앙과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서로 평화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아기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이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를 한 번 쳐다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포대기에 싸여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의 이 작은 아기는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구유는 먹이 통입니다. 먹이통! 이 구유는 누워있는 이 아기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자신은 사람들의 먹이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통에 누워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우리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이 분은 어둠속에 빛을 주시려 오셨고, 갈등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세지입니다. 성탄과 더불어 비로소 우리가 구원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살아가라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 입니다.

이것이 이천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바로 그 날 밤, 첫 성탄절 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성탄의 메세지입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구세주는 용서의 구세주이시고, 자비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닮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때,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안에 시작됩니다. 그리니, 늘 행복하십시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요. 서로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십시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 입니다.

복잡하고 바쁜 시즌입니다. 즐겁게 지내세요. 캐롤도 신나게 부르고, 밝게 불도 다 켜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파티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세지를 기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행복과 기쁨,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 삶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